

코로나19 위험인식에 따른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 결정과정 : 규범 활성화 모델을 활용하여

전창영^a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수료

송운강^b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양희원^c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

The Process of Determining of Pro-Social Tourism Behavior Intention according to the Perception of the Risk of COVID-19 : Utilizing the Norm Activation Model

Chang-Young Jeon^a, Woon-Gang Song^b, Hee-Won Yang^c

^a Department of Tourism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b Department of Tourism Administr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c Division of Research, Research Institute for Gangwon, South Korea

Received 30 May 2021, Revised 15 June 2021, Accepted 23 June 2021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ceding factors that form pro-social tourism behavior intent in a pandemic situation and to pres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ole of individuals for a safe tourism environ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by collecting 420 valid questionnaires targeting citizens who have lived in Korea continuously for more than one year. For the analysi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were used, and a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CFA) and a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MSEM) were used to verify the difference by age group.

Findings - First, cognitive and affective risk perception for Covid-19 had a significant (+) effect on the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to tourists, and affective risk perception and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had a significant (+) effect on personal norms. Second, personal norms have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 influence on prosocial tourism behavior intention, and prosocial tourism behavior intention has a significant (+) influence on WTP on safety tourism.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ourism behavior in a pandemic situation can affect the spread of infection. In this respect,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how moral norms affect pro-social tourism behavior from a personal point of view. In addition, we tried to present practical implications by identifying the impact of personal norms on willing to pay for a safe tourism environment.

Keywords: Covid-19 Risk Perception, Norm Activation Model, Pro-social Tourism Intention, Willing to Pay for Safety Tourism

JEL Classifications: C89, L83

^a First Author, E-mail: magic0207@kangwon.ac.kr

^b Co-Author, E-mail: woongang@kangwon.ac.kr

^c Corresponding Author, E-mail: yheewon@rig.re.kr

© 2021 The Institute of Management and Economy Research.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지역 또는 장소 간 이동을 전제로 하는 관광활동은 전염병 등 외부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전염병 등의 위생적 요인은 관광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관광수요와 이미지, 그리고 관광목적지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임은순·손태환, 2007). 최근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고조시켜 외출 및 관광활동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관광산업이 침체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서(안동·유효강, 2020), 국가의 실물경제와 노동시장의 충격으로 이어졌다(황선자, 2020).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국내에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염의 위험성은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의 위험성 인식 또한 높아진 상황이다. 보건복지부·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2021)에 따르면, 2020년 12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평균 1.78점으로 나타나 9월(1.77점), 3월(1.73점), 5월(1.5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12월 조사에서 가족감염, 본인감염과 타인전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면서 안전을 고려하여 관광목적지 보다 친숙한 집 근처 근거리 생활 관광지를 찾거나 자연친화적이고 청정지역에 대한 관광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관광공사, 2020).

이처럼 감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광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인해 위험인식이 무너지면서 외부활동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 블루(우울) 증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가 및 관광활동을 하고자 하는 태도(서울관광재단, 2021)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이 지속된다면, 관광시장 회복에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코로나19 감염확산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관광행동을 제약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안전한 관광행동을 유도하고 관광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사람들의 관광행동의도가 친사회적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 결정과정에 대한 연구(Bae and Chang, 2020; Sánchez-Cañizares et al., 2020)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가 실질적으로 안전관광을 위한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고, 연령집단별 비교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이타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고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Schwartz(1977)가 제안한 규범 활성화 이론(norm activation model)을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규범 활성화 이론의 개인규범은 특정 행동 이행여부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의미하는데(Schwartz and Howard, 1981),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광활동을 이행할 것 인지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이 친사회적 관광행동에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 결정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 위험성 인식이 관광자의 책임 귀속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위험성 인식과 책임귀속이 개인규범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파악하여,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을 활성화시키는 선행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규범과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 간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안전한 관광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지불의사에 대한 선행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령은 관광객의 행동 및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김경희·이선민, 2015), 코로나19 위험인식과 책임귀속, 개인규범,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 안전관광 WTP 간 구조적 영향관계에 조절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광자가 인식하는 위험성 유형별로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이 규범 활성화 모델을 통한 설명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규범과 친사회적 관광행동의가 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관광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코로나19 위협인식과 관광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일상생활을 변화시키면서 그 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 수준의 팬데믹(Pandemic) 상황으로 전개되었다(류현숙, 2020). WHO(2021)는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의 확진자 수는 약 1,285만 명, 사망자 수는 약 280만 명에 이르고, UNWTO(2021)는 코로나19 발생으로 2020년 국제선의 비중이 약 74% 감소하여 국제관광수입 손실이 약 1조 1천억 달러 발생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감에 영향을 미쳤다(Ding, Huang, and Xie, 2020).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위험성과 불안감을 인식하면서 외출과 여가활동을 자발적 축소하였고, 사회는 개인의 국내·외 여행을 제약하였다(이재은·김준현, 2020).

이처럼 개인의 위험인식(perceived risk)은 관광행동 시 객관적인 상황인식에서 벗어나 주관적으로 위험을 인식하며,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중점을 두고 행동하게 된다(조승아·김상운, 2018). 그리고 관광행동 및 관광의도결정에 영향을 미친다(Huang et al., 2020).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행동 변화와 관련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Sánchez-Cañizares et al. (2020)은 코로나19 위험성 인식을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여 사람들의 여행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김성태(2020)역시 단일차원에서 사람들의 긍정·부정적 감정과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한편, Bae and Chang (2020)은 코로나19 위험성 인식을 인지적·정서적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여 'untact' 관광행동의도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새로운 변화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Jeon and Yang (2021)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강원도를 방문한 사람들의 이동형태 변화를 분석한 연구에서 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밀집공간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낮은 해안 등의 자연관광지로의 이동성향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주철·김영미(2020)는 코로나19가 관광레저 활동에 미치는 인식차이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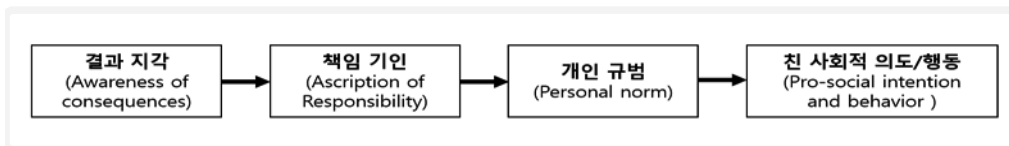
이처럼 사람들이 관광행동 시 개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면, 관광행동결정에 영향을 미친다(Chew and Jahari, 2014). 특히 위험성인식에 관한 연구의 시작은 인지적 측면에 맞춰져 있었으나(Shim and You, 2015) Peters and Slovic(1996)는 정서적 위험인식 측면이 사람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하였으며, Loewenstein et al.(2001)은 정서적 측면을 반영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인지적 위험인식은 개인이 인식하는 심각성을 의미하는 반면, 정서적 위험인식은 위험성 노출에 대한 불안 또는 걱정을 의미한다(Sjöberg, 1998).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두 가지 측면에 기반한다는 점(Brug et al., 2004)에 바탕을 두고 인지적·정서적 위험인식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2 규범 활성화 이론(Norm Activation Model)

사회규범은 사회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규범을 지키도록 하여 인정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삼가도록 유도한다(김종흠, 2012; Hooper and Nielsen, 1991). 사회규범은 개인의 자아와 결부하여 개인규범으로서 작용하여 규범을 준수하는 행동에 자긍심을 심어주고, 위반한 행동에 대해서는 죄책감이 유발하는 내면화된 도덕적 태도를 유발한다(Hopper and Nielsen, 1991). 이러한 개인규범 발현과 관련한 규범 활성화 이론(norm activation model: NAM)은 개인의 이타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Schwartz에 의해 1977년 처음 제안되었고, 현재까지 환경, 행동 분야 등에서 개인의 책임 있는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중요요인으로서 활용되고 있다(Steg and De Groot, 2010; Zhang et al., 2013). 특히, 개인규범은 특정 활동을 억제하는 도덕적 규범으로서(Schwartz, 1977), 친사회적(pro-social)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Yun and Kim, 2020; Chen and Tung, 2014; Onwezen, Antonides, and Bartels, 2013). 즉, 개인규범은 사회문제에 대한 결과지각

정도(Awareness of consequences)와 책임귀속(Ascription)에 의해 영향을 받고,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 및 행동 의도에 대한 영향을 밝히는 이론이다(De Groot, and Steg, 2009). 여기서 ‘결과지각 정도’는 사회문제를 인식한 개인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우은주 · 김영국, 2019). 이는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여 개인의 윤리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황윤성, 2016). 책임귀속은 개인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아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해 느끼는 개인적 · 사회적 책임감을 의미하며(De Groot, and Steg, 2009), 사람들은 사회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므로 책임귀속을 통한 행동유도가 요구된다(황윤성, 2016). 따라서 개인규범은 특정 행동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다(Schwartz and Howard, 1981).

Fig. 1. Norm Activation Model



Source: De Groot and Steg (2009)

이와 같이 규범 활성화이론을 바탕으로 한 최근연구에서는 친환경 또는 친사회적 행동의도를 유발하는 이론으로 적용되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구윤희 · 안지수 · 노기영, 2020; 김춘홍 · 임광호 · 김진옥, 2019; 고은희, 2019; 우은주 · 김영국, 2019; 유광민 · 김현정 · 김남조, 2015). 구윤희 · 안지수 · 노기영 (2020)은 규범 활성화 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을 통합 적용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결과 지각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감축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식하여 윤리적 감정을 따르려는 수준이 정(+)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김춘홍 · 임광호 · 김진옥 (2019)는 미세먼지에 대한 개인의 가치가 친환경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 결과를 인지하는 과정을 거쳐, 책임귀속이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개인규범을 형성하여, 친환경 행동의도로 나타남을 제시하였다. 우은주 · 김영국 (2019)은 과잉관광현상에 대한 개인의 책임 관광의도를 규범 활성화 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았으며,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정적 결과를 지각할 경우, 책임귀속 과정을 거쳐 개인적 규범이 형성되고, 결과적으로 책임 관광의도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험성 인식이 관광행위에 대한 책임귀속 과정을 거쳐 개인적 규범으로 형성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규범이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 및 안전관광에 대한 비용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험인식이 관광행위에 대한 책임귀속, 개인규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개인규범이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 및 안전관광에 대한 WTP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NAM이론을 바탕으로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령집단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 위험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2020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30~39세가 코로나19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불안이 타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40~49세, 50~59세, 19~29세, 60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령집단별로 위험인식이 책임귀속과 개인규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규범이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와 안전관광에 대한 WTP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우은주·김영국(2019)은 과잉관광현상으로 인한 결과 지각이 과잉관광으로 인한 책임기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Meng et al.(2020)은 자원봉사 관광과 관련하여 개인이 자원봉사의 필요성 문제를 인식할수록 책임기인이 높아지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Zhao et al.(2020)은 유산관광과 관련하여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할수록 책임기인에 대한 긍정적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Kiatkawsin et al.(2020)은 스마트 관광객의 환경책임행동과 관련한 연구에서 문제인식과 책임귀속 간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Gao et al.(2016)은 관광객의 책임성과 관련한 연구에서 환경적 영향이 책임기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설 H1, H2를 설정하였다.

H1 코로나19 인지적 위협인식은 책임귀속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코로나19 정서적 위협인식은 책임귀속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진옥·한승훈(2019)은 미세먼지위험지각이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구윤희·안지수·노기영(2020)은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의한 결과 지각이 개인의 도덕적 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Zhao et al.(2020)은 유산관광에서 개인의 환경적 책임행동과 관련하여 관광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할수록 개인규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Liu et al.(2017)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자동차 사용량이 증가한 중국을 대상으로 개인의 자동차 사용 감소의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결과 인식이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가설 H3, H4를 설정하였다.

H3 코로나19 인지적 위협인식은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코로나19 정서적 위협인식은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은주·김영국(2019)은 과잉관광현상에 의한 책임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과잉관광 행동을 하지 않는 등의 개인규범이 향상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Kiatkawsin et al.(2020)은 개인규범의 환경책임행동에 대한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입증하였다. 김진옥·한승훈(2019) 환경책임귀속은 개인규범과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Liu et al.(2017)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와 관련한 책임기인이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Gao et al.(2016)은 관광객의 책임기인이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설 H5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H5 책임귀속은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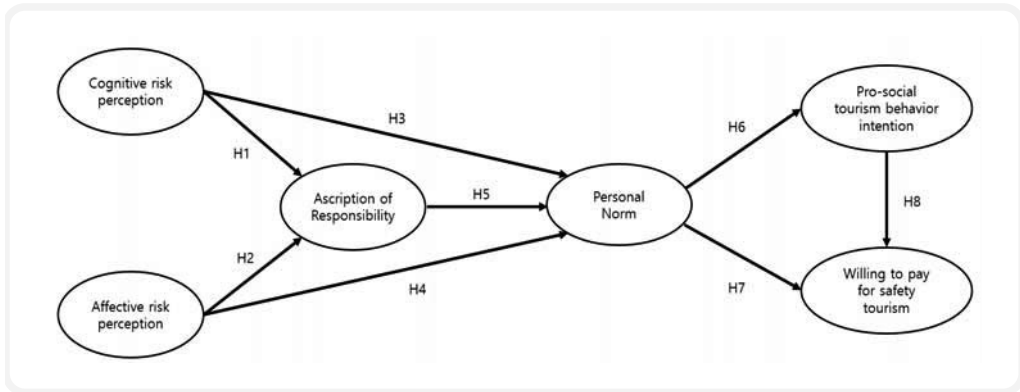
구윤희·안지수·노기영(2020)는 미세먼지 감축 행동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은주·김영국(2019)은 과잉관광에 의한 개인적 규범은 책임관광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입증하였다. 유광민·김현정·김남조(2015)는 기후변화의 책임이 개인에 있다는 인식이 친환경 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중흠·박은아(2015)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 친환경 소비의도 및 친환경 행동의도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가지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Liu et al.(2017)은 자동차와 관련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개인규범이 자동차 여행을 줄이려는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Sánchez-Cañizares(2020)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행의도는 여행하는 동안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지불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설 H6, H7, H8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H6 개인규범은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개인규범은 안전관광 WTP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8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는 안전관광 WTP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영남·홍성화(2020)는 코로나19 감염위험성에 대해 연령별 낙관적 편향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20대 이하의 연령집단이 60대 이상의 연령집단보다 낙관적 편향 성향이 크다고 제시하였다. 김성태·김진동(2020)은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관광위험지각과 행동의도 간 영향관계에 연령이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40세 미만의 저연령 집단과 40세 이상의 고연령 집단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코로나19에 따른 연령집단별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 H9를 설정하였다.

- H9 연령집단별 코로나19 위험인식에 따른 영향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Fig. 2. Research Model



3.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코로나19 위험인식과 관련한 측정항목은 Yildirim and Güler(2020), Bae and Chang(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지적 위험인식과 정서적 위험인식 각각 4개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NAM이론을 구성하는 책임 귀속 및 개인규범에 대한 측정항목은 Kim and Hwang(2020), Meng et al.(2020), Zhao et al.(2020), Kim et al.(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각각 3개, 4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와 관련한 측정항목은 Miller et al.(2015), Ribeiro et al.(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안전관광 WTP에 대한 측정항목은 Sánchez-Cañizares et al.(2020), Wang et al.(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명목척도를 사용하여 성별,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구성하였다.

3.3. 설문조사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최근 1년 이상 한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국민을 대상으로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7일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Data Spring Korea'를 통한 온라인 패널조사 324부, 오프라인 설문지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20년 인기 주요관광지점 중 3곳을

선정(강구항, 도담삼봉, 순천만국가정원)하여 각각 45부씩 총 135부를 수집하여 온·오프라인 총 459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특히, 온·오프라인을 통합하여 연령별 표본을 고르게 수집하기 위해 할당표본추출법을 활용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한 설문지 39부를 제외한 420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Amos 23.0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가설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및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령집단별 차이검증을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CFA) 및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Multi-Samp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SEM)을 활용하였다.

IV. 분석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여성이 218명(51.9%)으로 남성 202명(48.1%)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 40~49세가 87명(20.7%), 20~29세와 30~39세가 각각 86명(20.5%), 50~59세 83명(19.8%), 60세 이상 78명(18.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 응답자가 260명(61.9%)로 미혼 응답자 160명(38.1%)보다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대학졸업자 264명(62.9%), 고졸이하 80명(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회사원이 144명(34.3%), 주부 67명(16.0%), 기타 51명(12.1%), 전문/기술직 46명(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599만원이 138명(32.4%), 200~399만원이 119명(28.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202	48.1
	Female	218	51.9
Age	20s	86	20.5
	30s	86	20.5
	40s	87	20.7
	50s	83	19.8
	Older than 60	78	18.6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80	19.0
	University student	32	7.6
	University graduate	264	62.9
	Master and Doctoral degree	44	10.5
Occupation	office worker	144	34.3
	public officet	22	5.2
	self-employment	37	8.8
	agriculture and Forestry	12	2.9
	professional	46	11.0
	students	41	9.8
	housewife	67	16.0
	Etc	51	12.1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Under 2 million KRW	41	9.8
	2~4 million KRW	119	28.3
	4~6 million KRW	136	32.4
	6~8 million KRW	75	17.9
	Over 8 million KRW	49	11.7
	total	420	100

4.2. 확인적 요인분석 및 판별타당성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결과, <Table 2>와 같다. 모형 적합도는 CMIN=441.230(df=194 p=.000); RMR=0.042, GFI=0.914, NFI=0.912; IFI=0.949; CFI=0.948; RMSEA=0.055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모든 측정항목의 요인적재량은 기준치인 0.6이상($p < .001$)의 값을 나타냈다. 그리고 측정항목에 대한 집중타당성 검증결과, 평균분산추출(AVE)값은 모든 요인에서 기준치인 0.5이상으로 나타났으며(Pornell and Larcker, 1981), 개념신뢰도(CR: Composit Reliability)는 기준치인 0.7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을 확보하였다(Hair et al., 2014). 또한 <Table 3>과 같이, 요인 간 상관관계 값의 제곱 값은 AVE 값보다 낮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하였다(Fornell and Larcker, 198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actor	Item	Estimate	AVE	CR
Cognitive risk perception	Covid-19 is generally more likely to be infected.	.736	.521	.812
	I am more likely to contract Covid-19 than others.	.651		
	Compared to other diseases, you are more likely to contract Covid-19.	.794		
	There is a possibility of dying of Covid-19.	.661		
Affective risk perception	I'm afraid I'll be infected with Covid-19.	.828	.651	.881
	I am worried that my family will be infected with Covid-19.	.796		
	I'm worried about the covid-19 outbreak in my area.	.794		
	I am worried that Covid-19 continues to be an issue of health.	.660		
Ascription Responsibility	I think all tourists are partly to blame for the spread of Covid-19.	.783	.617	.827
	I think all tourists are partly to blame for the spread of Covid-19.	.819		
	All tourists believe that necessar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tourism.	.637		
Personal Norm	I feel a moral obligation to try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such as reducing the number of tourism activities or not engaging in tourism.	.856	.665	.887
	I feel a sense of moral obligation from Covid-19 such as refraining from tourism for the safety of people and communities.	.840		
	I feel a moral obligation to take altruistic ac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700		
	No matter what others do in the Covid-19 situation, I feel I should abstain from tourism because of my own values/principles.	.694		
Pro-socil tourism Behavior Intention	For the safety of society in tourism, some inconveniences caused by Covid-19 quarantine are readily acceptable.	.633	.616	.825
	I am willing to abstain from tourism to stem the spread of Covid-19.	.843		
	I will act to ensure that Covid-19 does not spread when I undertake tourism in the near future.	.631		
Willing to pay for safety tourism	I am willing to pay extra for safeguard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in tourism.	.847	.726	.914
	I am willing to pay more for quarantine so that the tourist attractions I visit are safe from Covid-19.	.903		
	I am willing to pay more for quarantine so that my family can do tourism safe from Covid-19.	.842		
	I am willing to pay more for safety from Covid-19 when using tourist facilities.	.889		

Note: CMIN=441.230(df=194, P=.000), RMR=.042, GFI=.914, NFI=.912, IFI=.949, CFI=.948, RMSEA=.055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Constructs	Cog	Aff	AR	PN	PTBI	WTP	mean(S.D.)
Cog	.521						3.30(.773)
Aff	.501	.651					3.95(.747)
AR	.318	.321	.617				3.79(.756)
PN	.313	.462	.596	.665			3.96(.725)
PTBI	.237	.354	.369	.547	.616		4.20(.651)
WTP	.088	.153	.208	.237	.293	.726	3.16(.985)

Note: The bold numbers on the diagonal are the AVE. off-diagonal numbers are the square of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Cog: cognitive risk perception, Aff: affective risk perception, AR: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PN: Personal norm, PTBI: Pro-socil toruism behavior intention, WTP: Willing to pay for safety tourism

4.3. 가설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모형의 적합도는 CMIN=445.439(df=200, p=0.000); NFI=0.911(0.9이상) IFI=0.949 (0.9이상), CFI=0.949(0.9이상); RMSEA=0.054(.01미만) 등으로 나타나 적합한 수준으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가설검증결과, 인지적 위험인식과 정서적 위험인식은 관광행위자에 대한 책임귀속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위험인식은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적 위험인식은 개인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관광을 억제하려는 규범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면 굳이 관광을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책임귀속은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개인규범은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규범이 안전관광에 대한 WTP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관광을 억제하려는 규범적 태도가 안전에 대한 추가비용지불 의사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는 안전관광에 대한 WTP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Hypothesis Test Results

	Hypothesis	Estimate	S.E	C.R.	Result
H1	Cog → AR	.237	.079	3.004**	Accept
H2	Aff → AR	.267	.091	2.932**	Accept
H3	Cog → PN	-.031	.064	-.482	reject
H4	Aff → PN	.426	.078	5.482***	Accept
H5	AR → PN	.576	.059	9.818***	Accept
H6	PN → PTBI	.497	.050	9.914***	Accept
H7	PN → WTP	.102	.114	.900	reject
H8	PTBI → WTP	.543	.167	3.242**	Accept

Note: *p<0.05, **p<0.01, ***p<0.001

CMIN=445.439(df=200, P=.000), NFI=.911, IFI=.949, CFI=.949, RMSEA=.054

Cog: cognitive risk perception, Aff: affective risk perception, AR: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PN: Personal norm, PTBI: Pro-socil toruism behavior intention, WTP: Willing to pay for safety tourism

4.4. 연령집단별 교차타당성 분석

연령별 집단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하고, 교차 타당성(Cross Validity)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CFA)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동일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절차인 교차타당성은 측정모형에서 집단 간 측정가중치(요인부하량)가 동일하다고 제약하는 측정가중치 모형(Measurement weights)을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간 $\Delta df = 64(1034 - 970)$, $\Delta \chi^2 = 80.816(1683.721 - 1602.905)$, χ^2 차이의 $p = 0.076$ ($\alpha = .0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제약모형에 측정가중치가 동일하다는 제약 이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아 연령집단별 교차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연령집단별 다중집단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비교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Table 5. Cross-Validation Test Results

	Unconstrained Model	Measurement Weights Model
χ^2	1602.905	1683.721
$\Delta \chi^2$		80.816
$\Delta \chi^2$ p-value		.076

4.5. 연령집단별 가설검증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CFA)을 통해 연령집단별 측정가중치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MSEM)을 활용한 연령집단별 영향관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집단 간 측정가중치와 구조가중치가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하는 구조가중치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간 $\Delta df = 184(1184 - 1000)$, $\Delta \chi^2 = 267.735(1910.527 - 1642.792)$, $p = 0.000$ ($\alpha = .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집단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경로별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6. Test Differences by Age Group

	Unconstrained Model	Structural Weights Model
χ^2	1642.792	1910.527
$\Delta \chi^2$		267.735
$\Delta \chi^2$ p-value		.000

연령집단별 차이성이 검증되어 집단별 가설검증을 실시하였다. 가설검증결과, 30대 집단은 인지적 위험인식과 책임귀속 간 영향관계에서 0.287(C.R.=2.778, $p < .01$)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연령집단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정서적 위험인식과 책임귀속 간 영향관계에서 50대 집단이 0.379(C.R.=2.706, $p < (0.01)$)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 연령집단은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인지적 위험인식과 개인규범 간 관계에서 모든 연령집단에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서적 위험인식은 20대 0.502(C.R.=3.098, $p < (0.01)$), 50대 0.357(C.R.=2.276, $p < (0.05)$), 60대 이상 0.406(C.R.=2.180, $p < (0.05)$)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대와 40대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책임귀속과 개인규범 간 영향관계에서는 20대 0.524(C.R.=5.247, $p < (0.001)$), 30대

1.345(C.R.=3.282, $p < 0.01$), 40대 0.556(C.R.=6.135, $p < 0.001$), 50대 0.991(C.R.=3.568, $p < 0.001$), 60대 이상 0.734(C.R.=3.884, $p < 0.001$)로 모든 연령집단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규범이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20대 0.614(C.R.=5.012, $p < 0.001$), 30대 0.299(C.R.=2.831, $p < 0.01$), 40대 0.436(C.R.=3.734, $p < 0.001$), 50대 0.734(C.R.=6.997, $p < 0.001$), 60대 이상 0.336(C.R.=3.761, $p < 0.001$)으로 모든 연령집단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광 WTP에 대해 개인규범의 영향은 20대 0.459(C.R.=2.466, $p < 0.05$), 60대 이상 0.424(C.R.=2.936, $p < 0.01$)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대, 40대와 50대는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안전관광 WTP에 대한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의 영향은 30대가 0.907(C.R.=2.108, $p < 0.05$)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외 연령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Table 7. Hypothesis Test Results by Age Group

Hypothesis	20s			30s			40s			50s			60s~		
	B	β	CR	B	β	CR	B	β	CR	B	β	CR	B	β	CR
Cog → AR	.218	.156	1.007	.287	.580	278**	.101	.095	.589	.262	.312	1.871	.102	.107	.581
Aff → AR	.354	.254	1.622	.068	.079	.486	.150	.095	.619	.379	.456	2706**	.303	.327	1.807
Cog → PN	.099	.075	.673	-.125	-.166	-.865	-.061	-.076	-.625	-.174	-.155	-.170	-.073	-.056	-.365
Aff → PN	.502	.382	308**	.088	.067	.480	.263	.221	1.824	.357	.322	2276*	.406	.319	2180*
AR → PN	.524	.554	5247***	1.345	.887	3262**	.556	.739	6135***	.991	.743	3568***	.734	.536	3884***
PN → PTBI	.614	.628	5012***	.299	.448	2831**	.436	.780	3734***	.734	.971	6997***	.336	.631	3761***
PN → WTP	.459	.373	2466*	.146	.076	.577	-.127	-.075	-.273	-.840	-.594	-.671	.424	.476	2936**
PTBI → WTP	.099	.078	.531	.907	.316	2108*	1.440	.472	1.498	1136	6009	.670	.084	.050	.297

Note: * $p < 0.05$, ** $p < 0.01$, *** $p < 0.001$

Cog: cognitive risk perception, Aff: affective risk perception, AR: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PN: Personal norm, PTBI: Pro-social tourism behavior intention, WTP: Willing to pay for safety tourism

V.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의 결정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안전관광을 위한 추가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개인규범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연령집단별 비교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세부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친사회적 행동예측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NAM(Norm Activation Model)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광자들의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 및 안전을 위한 지불의사에 미치는 선행요인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고 관광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 방안에 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인지적·정서적 위협인식이 강할수록 관광행위자들의 책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은주·김영국 (2019), Meng et al. (2020), Zhao et al. (2020) 등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인이 인식하는 위협인식이 높아질수록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관광행위자들에게 있고 관광행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어 관광행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령집단별 결과에서 30대는 인지적 위협인식이, 50대는 정서적 위협인식이 책임귀속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연령집단이 관광행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일 수 있도록 관광객 개인들의 철저한 개인방역을 준수하여 사회적 갈등 유발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적 위협인식은 관광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적 위협인식은 개인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진옥·한승훈 (2019), 구윤희·안지수·노기영 (2020), Liu et al. (2017)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코로나19 감염걱정이 많아질수록 관광행동을 자제하는 등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위협성을 인지하더라도 도덕적 규범형성과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인과 사회적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협성과 관련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연령집단별 분석결과에서 20대, 50대, 60대가 지각하는 정서적 위협성이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광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성이 개인의 관광활동을 제약하는 규범으로 형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책임귀속은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든 연령집단에서도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가 나타나 관광행위에 대한 책임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관광행동자제 등 도덕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우은주·김영국 (2019), Kiatkawsin et al. (2020) 등의 연구결과와 맥락과 같은 결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이 관광객들에 의한 것이라는 책임성 인식이 높아질수록 개인의 외부행동을 자제하는 등 규범적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책임성문제와 개인규범 간 영향관계가 지속된다면, 사람들의 관광활동을 더욱 더 위축시켜 관광시장의 어려움이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관광객들의 책임성 인식을 낮출 수 있도록 관광지에서 개인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을 강력히 권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규범은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집단에서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구윤희·안지수·노기영, 2020; 유광민·김현정·김남조, 2015)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행동자제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 실질적으로 관광환경의 안전을 위한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국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안전한 관광환경을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적 규범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개인규범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맞은 관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이 확인된 것이다. 반면, 개인규범은 안전관광에 대한 비용지불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1년동안 지속된 시점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방역활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 비용지불의사와 유의한 영향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지와 관광시설은 자체적으로 방역예산을 투입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친사회적 관광행동의도는 안전관광에 대한 WTP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집단비교에서는 30대만이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Sánchez-Cañizares (2020)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사회의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적 행동의도가 긍정적일수록 개인과 가족이 안전을 위한 추가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관광지와 관광시설은 방역시스템 구축 또는 방역인증제를 도입하여 일부 비용을 관광객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의 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한 시점에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코로나19의 발생 초기 및

방역 단계에 따라, 관광객이 가지고 있는 위험과 책임 및 개인규범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확산규모가 감소하여 위협인식이 낮아진 상황에서 연구를 통해 확산 시점에 따른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성별, 교육수준 및 소득 등 표본특성에 따른 비교 분석 등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관광행동의도 결정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관광지 관리 및 마케팅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References

- 고은희 (2019). "호텔 이용 고객의 친환경 행동의도 결정과정 연구: 규범 활성화 모델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8(7), 37-56.
- 구윤희·안지수·노기영 (2020). "미세먼지 감축 행동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 (TPB) 과 규범활성화 모형 (NAM) 의 통합 적용". *한국언론학보*, 64(3), 47-76.
- 김경희·이선민 (2015). "농촌 공정관광의 품질과 만족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3), 523-540.
- 김성태 (202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관광위험지각과 감정반응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리조트연구*, 19(5), 133-150.
- 김성태·김진동 (2020). "전염병 발생에 따른 관광위험지각,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연령의 조절효과". *관광연구저널*, 34(12), 75-89.
- 김영남·홍성화 (2020).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낙관적 편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제주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4(8), 79-101.
- 김중흠 (2012). "친환경 행동 및 친환경 유기농산물 구매의도에 대한 도덕적 규범의 활성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3(2), 137-158.
- 김중흠·박은아 (2015). "친환경 행동의도 및 친환경 소비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규범과 동기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6(1), 1-22.
- 김진옥·한승훈 (2019). "자연기반 야외활동 참여자의 가치가 미세먼지위험지각과 책임귀인을 통해 환경정책 지지에 미치는 영향: VBN (Value-Belief-Norm) 이론을 적용". *관광연구저널*, 33(3), 5-20.
- 김춘홍·임광호·김진옥 (2019). "미세먼지 인식이 친환경 관광행동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광레저연구*, 31(9), 77-98.
- 보건복지부·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2021). 2020년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
- 서울관광재단 (2021). "코로나19로 인한 여가관광 활동 제약으로 서울시민 대다수 코로나 블루 겪는다!". 보도자료.
- 안동·유효강 (2020). "코로나19의 발생이 중국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Tourism Research*, 45(2), 309-325.
- 우은주·김영국 (2019). "과잉관광 현상에 대한 관광객 인식 이해: 규범활성화 이론을 바탕으로". *이벤트컨벤션연구*, 34, 121-135.
- 유광민·김현정·김남조 (2015). "기후변화 발생 책임인식이 관광 상황에서 개인 규범과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광학연구*, 39(5), 87-100.
- 이재은·김준현 (2020). "코로나19 관련 국내의 경기부양책 현황 및 시사점". 이슈와논점, 제1697호, 국회입법조사처.
- 임은순·손태환 (2007). "ARIMA기법을 통한 질병증후군의 관광수요 영향력 연구". *관광학연구*, 31(1), 365-381.
- 조승아·김상운 (2018). "관광지 위험지각에 대한 낙관적 편견이 관광지 전환의도 및 위험 감소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42(10), 175-190.
- 최주철, and 김영미 (2020). "코로나 19 가 관광레저활동에 미치는 인식 차이 분석". *관광레저연구*, 32(7), 159-177.
- 한국관광공사 (2020). "'안전의식'이 바꾼 여행 트렌드 'S.A.F.E.T.Y.'", 한국관광공사 보도자료.

- 황선자 (2020).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과 사회대전환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노동N이슈*, 2020(4), 1-12.
- 황윤성 (2016). “한중일 친환경 소비자의 행동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ae, S. Y. and P. J. Chang (2020). The effect of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risk perception on behavioural intention towards ‘untact’ tourism in South Korea during the first wave of the pandemic (March 2020). *Current Issues in Tourism*, 1-19.
- Brug, J., A. R. Aro, A. Oenema, O. De Zwart, J. H. Richardus and G. D. Bishop (2004). SARS risk perception, knowledge, precautions, and information sources, the Netherland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0(8), 1486.
- Chen, M. F. and P. J. Tung (2014). Developing a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model to predict consumers' intention to visit green hotel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6, 221-230.
- Chew, E. Y. T. and S. A. Jahari (2014). Destination image as a mediator between perceived risks and revisit intention: A case of post-disaster Japan. *Tourism Management*, 40, 382-393.
- De Groot, J. I. and I. Steg (2009). Morality and prosocial behavior, The role of awareness, responsibility, and norms in the norm activation model.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9(4), 425-449.
- Ding, Y., J. Xu, S. Huang, P. Li, C. Lu and S. Xie (2020). Risk perception and depression in public health crises: Evidence from the Covid-19 crisi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6), 5728.
- Fornell, C. and D.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 Market. Res.* 18, 39 - 50.
- Hair, J. F., Jr., Black, W. C., B. J. Babin and R. E. Anderson (2014).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Pearson Education*.
- Hopper, J. R. and J. M. Nielsen (1991). Recycling as altruistic behavior: Normative and behavioral strategies to expand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recycling program. *Environment and Behavior*, 23, 195-230.
- Huang, X., S. Dai and H. Xu (2020). Predicting tourists' health risk preventative behaviour and travelling satisfaction in Tibet: Combin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health belief model.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33, 100589.
- Jeon, C. Y. and H. W. Yang (2021). The structural changes of a local tourism network: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 Covid-19. *Current Issues in Tourism*, 1-15.
- Kiatkawsin, K., I. Sutherland and S. K. Lee (2020). Determinants of smart tourist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using an extended norm-activation model. *Sustainability*, 12(12), 4934.
- Kim, Y. G., E. Woo and J. Nam (2018). Sharing economy perspective on an integrative framework of the NAM and TPB.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72, 109-117.
- Liu, Y., H. Sheng, N. Mundorf, C. Redding and Y. Ye (2017). Integrating norm activation model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understand sustainable transport behavior: Evidence from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4(12), 1593.
- Loewenstein, G. F., E. U. Weber, C. K. Hsee and N. Welch (2001). Risk as feelings. *Psychological bulletin*, 127(2), 267.
- Meng, B., B. L. Chua, H. B. Ryu and H. Han (2020). Volunteer tourism (VT) traveler behavior: merging norm activation model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8(12), 1947-1969.
- Miller, D., B. Merrilees and A. Coghlan (2015). Sustainable urban tourism: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visitor pro-environmental behaviours.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3(1), 26-46.

- Onwezen, M. C., G. Antonides and J. Bartels (2013). The Norm Activation Model: An exploration of the functions of anticipated pride and guilt in pro-environmental behaviou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9, 141-153.
- Peters, E. and P. Slovic (1996). The role of affect and worldviews as orienting dispositions in the perception and acceptance of nuclear power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 (16), 1427-1453.
- Ribeiro, M. A., P. Pinto, J. A. Silva and K. M. Woosnam (2017). Residents' attitudes and the adoption of pro-tourism behaviours: The case of developing island countries. *Tourism Management*, 61, 523-537.
- Sánchez-Cañizares, S. M., L. J. Cabeza-Ramírez, G. Muñoz-Fernández and F. J. Fuentes-García (2020). Impact of the perceived risk from Covid-19 on intention to travel. *Current Issues in Tourism*, 1-15.
- Schwartz, S. H. (1977).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New York: Academic Press.
- Schwartz, S. H. and J. A. Howard (1981), A Normative Decision-making Model of Altruism, In Altruism and helping behaviour: Social, *Personality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J. P. Rushton ed., Hillsdale, NJ: Erlbaum, 189-211.
- Shim, M. and M. You (2015). Cognitive and affective risk perceptions toward food safety outbreaks: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news use and food consumption intention.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5(1), 48-64.
- Sjöberg, L. (1998). Worry and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18(1), 85-93.
- Steg, L. and J. De Groot (2010), Explaining prosocial intentions, Testing causal relationships in the norm activation model.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9(4), 725-743.
- UNWTO(2021). Covid-19 AND TOURISM 2020: A year in review. <https://www.unwto.org/Covid-19-and-tourism-2020>
- Wang, Y., X. Liu, M. Huang, J. Zuo and R. Rameezdeen (2020). Received vs. given: Willingness to pay for sponge city program from a perceived value perspective.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56, 120479.
- Yıldırım, M., and A. Güler (2020). Factor analysis of the Covid-19 Perceived Risk Scale: A preliminary study. *Death Studies*, 1-8.
- Yun, S.-M., and T.-U. Kim (2020). Study on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 intention of customers visiting green coffee shops using the extended planning behavior theory and norm activation model. *Korea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29(2), 21-39.
- Zhang, Y., Z. Wang and G. Zhou (2013), Antecedents of employee electricity saving behavior in organizations, An empirical study based on norm activation model, *Energy Policy*, 62, 1120-1127.
- Zhao, X., X. Wang and L. Ji (2020). Evaluating the effect of anticipated emotion on forming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 in heritage tourism: developing an extended model of norm activation theory.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25(11), 1185-1198.
- WHO(2021).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